



시민들 투쟁기금 답지...연합뉴스 위상 달라진다

연합뉴스에 일반 시민들의 투쟁기금 답지가 줄을 잇고 있다.

4월20일 이후 현재까지 시민 38명이 47만여원을 보내왔다. 이전에도 일부 외부인사가 성금을 보내왔으나 20일을 기점으로 시민성금이 크게 늘었다.

연합뉴스가 취재 현장에서 시민들에게 ‘연합뉴스 기자는 커피도 마시지 마라’라는 냉대를 받았다가 파업 한달여 만에 시민들의 응원을 받게 됐다.

시민들 성금은 대개 3천원에서 1만원 미만의 소액이었지만, 그 성원의 마음은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을 것이다.

개인 명의로 보낸 이들이 대부분이었다. 요리 커뮤니티 ‘82쿡’ 회원 10여 명이 단체로 보내기도 했다. 정봉주 전 국회의원 팬카페인 ‘정봉주와 미래 권들’의 한 회원이 성금을 보냈다.

한신대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 관계자가 7일 오후 6시30분 연합뉴스 노조를 지지 방문해 소정의 투쟁기금을 전달했다.

박 사장 거취 여론조사에 전 사원 참여합시다!

전 사원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박정찬 사장의 거취에 대한 여론조사를 9일(수) 오후 6시 마감합니다.

이번 조사는 노조 홈페이지에서 비밀.무기명 방식의 온라인 조사로 진행되며, 객관성과 공정성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노조 외부의 중립적 인사들이 조사 과정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회사도 반박 못할 정도로 안전성과 익명성

이 확실히 보장되니 안심하고 참여하셔도 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뒤 우측 상단의 사진 위에 있는 설문조사를 클릭해 조사에 응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홈페이지에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접속방법, 비밀번호 등 문의는 이메일 (nojo@yna.co.kr)이나 전화(구내 3620-2), 노동조합 메신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사장 속한 사교모임에 회삿돈 기부 ‘논란’

“사장 체면세우기용 기부 아니냐” 지적

박정찬 사장이 회원(이사 자격)인 사교성격의 모임인 한미클럽에 회사가 기부금 명목으로 재임기간 3년간 800만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회사의 공금으로 사장이 개인적으로 속한 모임에서 ‘생색’을 낸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비록 3년간 800만원이 회사의 매출규모에 비해 큰 금액은 아니지만 한미클럽이 자선·구호 단체가 아닌데다 공교롭게 박 사장이 취임한 2009년부터 처음 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박 사장의 ‘체면세우기용’ 기부가 아니냐는 것이다.

회사의 감사보고서 등에 따르면 회사는 2009년

200만원, 2010년과 지난해 300만원씩을 한미클럽에 냈다.

이 단체는 방송, 신문, 통신사에서 워싱턴 특파원을 지낸 사람들이 한미관계를 증진하겠다고 모인 것으로 2006년 1월 공식 설립됐다.

박 사장은 이 단체의 이사 자격으로 활동 중이다. 감사보고서를 보면 뉴스통신진흥회, 기자협회, 사내복지기금, 언론인연합회를 제외한 순수 기부금 총액은 2009년 970만원으로 그해 한미클럽 기부금 200만원은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2010년 순수기부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처음 3천500만원을 내면서 5천500만원으로 늘었다.

한미클럽에 낸 돈은 매년 12월 열리는 한미클럽 송년의 밤 만찬 비용으로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 기획조정실은 4일 이에 대해 “연합뉴스가 미주지역에 특파원을 다수 내보내고 있어, 한미클럽에서 차지하는 연합뉴스 회원의 비중도 다른 언론사에 비해 크다”고 기부의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회사가 미주에 특파원을 보낸 게 최근의 일이 아니고 2006~2008년까지는 내지 않은 만큼 회사의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회사는 또 “한미클럽은 송년 모임 시 주요 언론사에 비용을 요청한다”라고 해명했으나 한미클럽



의 입장과 어긋난다.

한미클럽 봉두완 이사장은 “송년의 밤 비용을 마련하려고 이사장 명의의 비용 지원 공문을 (회사가 아닌) 이사들에게 발송한다”며 “개인이 내거나 소속 회사의 사정에 따라 비용을 마련하는 데 연합뉴스는 박정찬사장이 (그런일을)했다”고 말했다.

봉 이사장은 “연합뉴스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 비용을 내지 않다가 2009년부터 냈다”며 “언론사가 요즘 사정이 좋지 않아서인지, 노조가 세서인지 몰라도 안 내는 곳도 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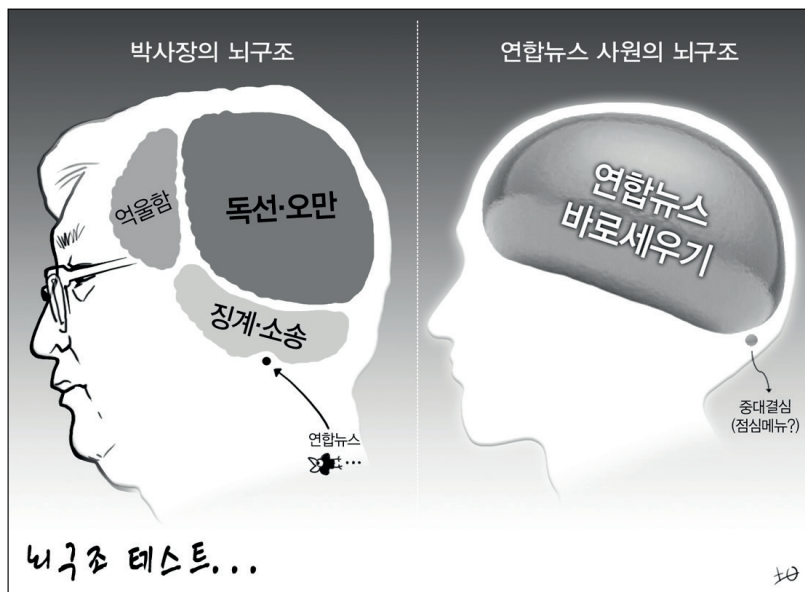
사측 관계자는 “사내게시판에 해명한 것 외엔 덧붙일 해명은 없다”고 말했다.

한미클럽에 연합뉴스의 예산뿐 아니라 기자까지 필요 이상으로 동원된 사례도 제보됐다.

사장 취임 직후인 2009년 4월 한미클럽과 친선관계가 있는 미국의 한 대학 총장이 사적인 친선모임을 위해 방한하자 정치부 기자 2명이 그를 토요일 밤에 만나 인터뷰하고 이튿날 열린 친선모임 현장 기사를 내보냈다.

해당기자는 “친선모임 참석차 방한한 만큼 별다른 내용이 없었으나 당시 팀장이 미안해하며 ‘사장이 직접 지시했으니 기사를 쓰라’고 하더라”라고 기억했다.

노보만평



김토일

뇌구조 테스트...

49

‘머리’ 안 쓰는 자, 살아남지 못하리! 한층 어려워진 연합오락관 시즌2

“술집→집수리→리어카→카드→...음, 드뷔시?!”

연합오락관 시즌2가 돌아왔다. 시즌1이 조합원들의 몸 개그가 빛나는 자리였다면 시즌2는 순발력과 더불어 해박한 지식까지 갖춰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고난도의 퀴즈였다.

8일 오전 조합원 80여명이 서관 8층에 모인 가운데 ‘집단 끝말잇기’ ‘사자성어 스피드 게임’ ‘초성 노래제목 맞추기’ 등 다양한 게임이 진행됐다.

첫 번째 퀴즈는 사자성어 스피드 게임. 2조에서는 설승은(산업부), 이슬기(사회부) 막내 조합원들이 벌떡 일어나 앞으로 나오더니 사자성어 4개를 연달아 맞추는 기염을 토해 “역시 젊은 피는 다르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즌 1때 ‘마법천자문’을 맞춰 연합뉴스 퀴즈계의 ‘솔로몬’으로 등극한 권영진 조합원(미디어과학부)은 이번에도 ‘오나라’, ‘사마귀’라는 키워드만 듣고 ‘오월동주’와 ‘당랑거철’을 단숨에 맞추는 신공을 발휘, 좌중의 박수세를 받았다.

두 번째 퀴즈는 오구동성. 각 조에서 5명씩 앞으로 나와 동시에 한 글자씩을 외치면 나머지 앉아있던 조합원들이 정답을 맞추는 게임이었다.

사회자 홍제성 조합원이 “똑똑한 분들은 자리에 남아서 답을 맞춰라”라고 주문하자 조성흠, 송진원 조합원(사회부) 등 일부 참여자들이 기탄없이 자리

를 박차고 앞으로 나가는 용단을 보였다.

해당 게임에서 4조는 ‘가처분 신청’ ‘파업 콘서트’ 등 파업과 관련된 용어들은 득달같이 맞히면서도 영어단어 앞에서는 유독 약한 모습을 보여 아쉬움을 남겼다.

대망의 마지막 게임은 바로 협동심과 순발력을 요구하는 집단 끝말잇기. 각 조에서 10여명이 앞으로 나와 주어진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은 단어의 끝말을 잇는 게임이었다.

그러나 임기창 조합원(사회부)이 ‘라일락’을 외쳤다가 “혼자 살겠다고 어려운 단어 말하지 마라”라는 비난을 받

았으며, 최동우 조합원(IT개발부)은 좌중의 도움을 받아 ‘드뷔시’를 내뱉었다가 바로 옆 사람의 어안을 병병하게 만들었다.

이날 1등을 차지한 3조가 노조 집행부에 상품을 요구하자 홍제성 조합원은 “상품 있다. 집으로 보낼 테니 각자 주소를 남기라”라고 말해 3조의 기대감을 부풀렸다. 이에 일부 조합원들은 “가처분 신청서를 보내려는 것 아니냐”라며 날카로운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오늘의 파업 키워드*

“운동”

파업 체력을 기르기에는 운동이 제격이다. 파업 55일 동안 조합원들은 각종 운동으로 내공을 쌓았다. 하지만 언제나 함께였다는 것이 핵심!

<아, 어찌란 말인가, 24-2의 전적>

이상했다. 국민일보 노조는 야구장 섭외도 하고 야구 장비 일체도 제공해 준다고 했다. 우리는 몸만 오면 된단다. 결과는 24-2로 연합뉴스 노조팀의 대패! 친선 야구대회 맞나요??T_T

<기협축구, 쓰라린 마음으로 기권 선언>

연합뉴스 축구단이 언론계 최대 스포츠행사인 기협축구대회에 불참하기로 했다. 축구단은 고양시청, 파주시청 팀과 발을 맞추며 전의를 불태웠다.

하지만 승전보를 울리더라도 즐겁게 박수칠 수 없는 상황을 고려,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고.

1차전 상대였던 일간스포츠는 내심 '강팀' 연합뉴스의 기권을 바랐다는 것이 축구단 오정훈 감독의 전언.

<김연정 조합원의 ‘등산’ >

자전거 타고 한강다리 12개 지나기 등 '격한' 운동을 즐겨왔던 김연정 조합원이 파업 기간 중 등산에 도전했다. 목표는 바쁜 일정으로 돌보지 못했던 '라인'을 되찾는 것!

한 주만에 인왕산, 아차산, 북한산, 용마산 등정을 마쳤더니 지리산 천왕봉이 그를 불렀다. 10시간 동안 비를 맞으며 하산했다는 김 조합원은 "10년간 지리산에 가지 않겠다"고 절규. 이어 "몸무게 변화없다"며 또 절규!

<K리그 방불케 하는 사내축구>

기협축구가 다가 아니다. K리그를 방불케하는 사내축구도 있다. 지난달 열린 정치-북한부 對 사회-사진부의 축구시합에서는 사회-사진부가 승리. 내깃돈 35만원을 투쟁기금으로 쾌척했다. 대승을 거뒀음에도 1:0으로 이긴 것으로 해달라는 이들은 새로운 도전팀을 기다리고 있다고.

<김용래 조합원의 ‘수영’ >

집회 일정이 끝나면 수영장으로 달려가 한 마리 물개가 된다는 김용래 조합원. 파업도, 운동도 함께해야 의미있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정성호 노조 사무국장과의 동기인 김정은 조합원을 수영의 길로 이끌었는데... 수영장에서 때때로 어색한 조우를 하고 있다는 후문.

<김동호 조합원의 ‘자전거’ >

성산대교에서 팔당댐까지 왕복 100km를 달린다는 김 조합원은 연합을 대표하는 자전거 라이더. 쭈쭈이 옷과 헬멧은 필수다. 사내 자전거 세력을 일으키겠다는 그의 바람은 파업을 계기로 결실을 맺고 있다. 그런데 '마수'를 자꾸만 피해가는 1인이 있다고. "임기창 선배, 제 고급 자전거 싸게 드릴 수 있단니까요~"



“분노하리! 연합뉴스”